

조선반도평화의 파외자, 전쟁대결광들

또다시 벌어질 위험한 전쟁대결

얼마전 남조선군부장들이 미국과 국방장관회담이라는 것을 벌여놓았다. 회담에서는 하반기 합동군사연습 확대 실시, 9월 중 《한미확장억제전략협약》가동, 미전략자산의 남조선전계를 포함한 핵억제태세강화, 그 후의 《핵위협》에 대처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의 실시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 후의 《위협》과 《도발》을 구실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수를 높이고 북침전쟁도발준비를 차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한 군사적 모의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회담에서 2022년 하반기 합동군사연습인 《울지 프리덤 실드》를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남조선의 4,000여개의 행정기관과 48만여명의 인민들의 동원하에 진행되는 《울지》연습과 통합하여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을 놓고 보아도 그러하다.

《울지 프리덤 실드》를 비롯한 합동군사연습, 연합훈련들은 지난 시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간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북침전쟁도발장난의 재현이며 그 연장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외세와 함께 이러한 대규모북침전쟁도발장난소동을 벌일 때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로 격화되고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합동전쟁연습을 수심만의 인원이 동원되는 《울지》연습과 통합하여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전쟁열에 들뜬 남조선호전세력은 최근년간 중시되었던 대규모연합상륙훈련인 《쌍용》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려고 달려들면서 올해 하반기에 11개의 연합훈련을, 다음해 상반기에는 연합대잠수함훈련을 비롯하여 21개의 연합화기공중훈련을 실시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것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대결광기가 극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9월 중 《한미확장억제전략협약》가동,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계를 포함한 핵억제태세강화, 그 후의 《핵위협》에 대처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는 문제도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무기

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범법적인 책동이 다. 특히 가까운 시일내에 《북의 핵위협》, 특히 핵사용탄탄체상정해놓고 그에 대처한 미국과 남조선군의 군사적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그 후의 《위협》을 구실로 공화국에 핵선제공격까지 가하려는 용납 못할 기도를 드러낸 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의 가맹기에 매달려 강행하려는 군사적대응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각일각 되돌릴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고 있다.

현실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주되는

원인이, 평화교란자는 다름 아닌 외세와 그와 결탁한 남조선호전광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북침전쟁도발을 위해 미국과 반공화국모의판을 벌이고 전쟁도발장난을 광분하지만 그것은 상전의 세계패권야망실현의 하수인, 대포박이 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위협계선으로 몰아가는 무모한 자멸적망동이다. 그것은 또한 날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가용할 군사적대응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허세성 책동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할수록 얻어오는 것은 더 큰 안보불안과 위기, 비참한 종말뿐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얼마전에 남조선군부장은 《업무보고》라는 《협에 의한 평화》를 운운하면서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한국형3축타격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을 확보하고 작전태세를 강화한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강군》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연합항공모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훈련을 비롯하여 현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냈다.

남조선호전광들의 이러한 망동은 공화국에 대한 공포감만 높일 뿐이고 도전을 초월한 북남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전쟁의 불기둥을 불어넣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행위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떠드는 《북의 위협》, 《북의 도발》

이란 인민의 안녕과 행복,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일상적이며 자위적인 행동들이다. 동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행동은 모두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강화와 북침전쟁연습, 훈련들을 《대북억제력 확보》라고 미화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행태야말로 비논리적이고 이중적이며 유치한 망동이다.

이런 인민의 안녕과 행복,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일상적이며 자위적인 행동들이다. 동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행동은 모두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강화와 북침전쟁연습, 훈련들을 《대북억제력 확보》라고 미화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행태야말로 비논리적이고 이중적이며 유치한 망동이다.

식음을 모르는 대결광기

이런 인민의 안녕과 행복,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일상적이며 자위적인 행동들이다. 동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행동은 모두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강화와 북침전쟁연습, 훈련들을 《대북억제력 확보》라고 미화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행태야말로 비논리적이고 이중적이며 유치한 망동이다.

이런 인민의 안녕과 행복,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일상적이며 자위적인 행동들이다. 동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행동은 모두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강화와 북침전쟁연습, 훈련들을 《대북억제력 확보》라고 미화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행태야말로 비논리적이고 이중적이며 유치한 망동이다.

여 작전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떠들고있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압살책동에 편승하여 체제대결망상을 실현해보려는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광대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은 간판이나 《방패》로 바꾼다고 하여 북침전쟁연습의 침략적성격을 가리울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의 괴뢰, 대포박에 불과한 남조선군부장들이 세계적인 핵강제국 공화국과 엮어서 보려 하는 것이야말로 화살로 하늘의 태양을 쏘아떨어려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태이다. 그리고 염전, 염공공조가 만연되고 패물패덕이 살판치는 법외의 집단, 부패타락한 오합지졸의 무리에 불과한 것들이 그 무슨 《첨단강군》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시궁창에서 장미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해피하고 가스론을 추태이다.

자기자신에 대한 과신과 과욕, 상부에 대한 종단에게 된 합동군사연습들을 재개하고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대조선전대시책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대군부합동군사연습과 훈련을 통하



인권동토대에서 울리는 가소로운 《인권》라령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의 《북인권》소동을 편승하여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북조선인권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때를 같이하여 윤석열역적패당은 《북인권재단》설립을 올해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가 하면 2016년에 제정된 《북인권법》을 보다 약질적으로 개악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남조선내부에서 《북인권》문제를 널리 확산시키는 것과 함께 《북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새로 취임하는 유엔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동맹, 유엔을 대상으로 한 외교활동을 보다 적극화하는 등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을 국제적범위에서 확산시키고 발악하고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북인권》소동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완전파괴에 몰아가는 반민족적망동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 것이 없으며 사회제도특성상 있을수도 없다.

공화국에서는 국력의 평가기준도 인민의 웃음소리와 경제발전의 목적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사업의 평가기준도 인민의 요구와 이익으로 되고 있다.

살림집문제 하나만 놓고 보아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지식인들이 현대문명에서 융복합의 보통강장이다. 따라서 주택과 송화기, 리프트, 미배과학자거리들과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도처에 일떠선 사회주의의 문명거리, 사회주의선경마을들에

돈 한푼 내지 않고 보금자리를 펴고 최상의 문명을 누리고 있다.

하기에 여러 나라 언론들은 《조선에서는 서방에서는 일반주민들이 꿈도 꾸지 못할 최상의 살림집을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있다》, 《인민을 위하여는 나라가 아니고서는 업도 내지 못할 일이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니고 최상의 수준에서 최고의 속도로 창조하는 진정한 사회주의이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은 어떠한가. 변화가 사회의 1%도 안 되는 특권계층의 것으로 되고 있고 99%에 달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실현될수 없는 꿈으로 되고 있다.

특히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처할 곳조차 없게 된 것을 방황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사회주의의 조국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지만 남조선의 각계층은 자기 자신이 사는 땅을 《망한 민족》, 《혈(지옥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자살명소》, 《자살에방생터》 등의 말들도 남조선의 치참한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산 증거들이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후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인민불모지인 제치지도 못하고 설치된 뻔뻔스리움과 호인부치의 극치, 무덤덤한 망무척도 폭소를 터뜨릴 회피국이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인권》소동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정치와 반민족적악정으로 하여 날로 높아가는 저들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의 화살을 탄대로 돌려보려는 비렬한 정치모략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망동은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이 윤석열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을 막다른 집권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망동으로 단죄하면서 반윤석열투쟁에 적극 나서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을 일군들기 전에 제 집안을 일군들보지, 인권을 폐지하며 만든 반인권적악무리 인민일애, 세력망탈에 고백하고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신 기 복

진보세력망살을 위한 파쇼적 탄압 선편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주로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진보적단체들과 민주개혁적인 언론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전부터 민주로총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던 역적패당은 취임후 생존권을 위한 민주로총의 투쟁들을 《불법》으로 몰아 수많은 과업참가자들을 체포, 구속하였으며 민주로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성원들에게 징역형을 들씌우는 등 살벌한 탄압선편을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적인 언론들에 대한 《감사》놀음을 벌이고 저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언론들에게 《법위반》이라는 혐의를 씌워 체포하면서 언론장악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가 하면 전교조를 《교육계의 가장 큰 골치거리》라고 혈투하면서 비법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탄압책동은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반민족적악정파 사대매국, 동족대결

에 미쳐들아가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지금 그 대가를 독독히 치르고 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매일같이 《윤석열정권을 타도하자!》 등의 격노한 합성이 터져나오고 있고 집권층내부의 대립과 갈등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총체적정국정세와 무능한 정부에 대한 더이상 참을수 없는 국민분노의 폭발》이라고 평하고 있다.

집권자마자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역적패당은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보려고 반을 벌이고 저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언론들에게 《법위반》이라는 혐의를 씌워 체포하면서 언론장악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가 하면 전교조를 《교육계의 가장 큰 골치거리》라고 혈투하면서 비법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탄압책동은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반민족적악정파 사대매국, 동족대결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천하바보짓

고대그리스의 우화에 서로 만든 단지와 흙으로 만든 단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쇠단지가 흙단지 보고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하자 흙단지는 자기는 아차하는 순간에 바싹날수 있으니 부엌에 남아있겠다고 한다.

쇠단지가 자기가 막아나서면 그 어떤 굳은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자 흙단지는 귀가 솔깃하여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피로에 지친 쇠단지가 헛발을 짚어 기우뚱하면서 흙단지를 다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말았다.

남한테 불어 덕을 보려다가는 망하게 된다. 생활의 철리를 전하는 우화로서 미국을 등에 업고 추악한 명성을 부지해보려 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이 이 이야기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식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등을 《보편적가치》로 내세우고 일반적인 편가르기와 친미불평등체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가치의교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소동과 친미골츠택동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남조선,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미국이 내세우는 《보편적가치》에 편

승하는 대미골츠택교로 《국익》과 《위상제고》실현이라는 허황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로 하여 차폐결정은 조선반도정세전개와 북남대결 약화책이라고 평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이 《신북동맹》과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하여 북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안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윤석열역적패당이 《7대국정관계》에 《보편적가치》와 규범에 립각하여 대중국관계를 추진한다》는 조항을 박아넣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신냉전》의 최대격전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가치의교전략의 돌격대로 나서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로부터 중국과의 필연한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심대한 경제불복가능성만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친미편중정책은 북과 중국, 로씨야를 견제하면서 패권적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줄뿐이다. 미국이 강요하는 동맹강화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과 로씨야라는 거대한 이웃시장을 놓치는 패착을 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다각적인 동맹구축

에 주력하고 유럽에서 나토의 대로씨야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신냉전질서》 확립에 적극 가담하는 것으로 하여 미국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머저리짓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가치관》에 따른 가치의교를 내세우고 미국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확립에 편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것은 스스로 외교적고립을 자초하고 미국의 지배권에 더 깊숙이 얽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의 《가치의교》에 적극 추종하는 것은 뼈까지 들어찬 친미사대적, 미국이라는 《쇠단지》가 조금만 다쳐도 산산조각나는 《흙단지》와 같은 자기를 지켜줄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에 따른 것이다.

허욕과 망상에 따른 무모한 추태뒤에 따라오는 것은 수치와 비참한 과멸뿐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쇠단지와 흙단지에 대한 고대그리스의 우화를 읽어보고, 또 미국의 가치의교에 적극 추종하는 저들에 대한 진철을 놓치는 비논의의 목소리를 새겨들고 제 할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문성

윤석열역적패당이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안에 정식 내운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내부의 정치적혼란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집권하자마자 법무부와 검찰을 제 심복들로 꾸린 윤석열역적패당은 경찰가들이 투위기를 위해 검찰출신들을 위주로 행정안전부산하에 경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내온데 이어 얼마전에는 행정안전부안에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장악하여 남조선을 말그대로 《검찰공화국》에 이어 《경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반민족, 반민주적책태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역적패당의 경찰장악책동을 강력히 반대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역적패당의 경찰국신설책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독재를 실시하겠다는 선전포고, 경찰을 정치에속화하려는 로골적인 반민주적책태로 단죄하면서 당안에 경찰장악지지대책단을 내오는 등 강하게 반발해나가고 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행동,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국신설을 주도한 윤석열역적패당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람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가 하면 서울을 비롯한 여러곳들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경찰장

악을 반대하는 집회들을 대대적으로 진태하고 있다.

남조선경찰도 역적패당의 경찰장악책동에 집단적으로 항의해나가고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윤석열역적패당의 《경찰국》신설을 반대하여 경찰력상처움으로 190여명의 경찰사정들이 전지역경찰사회를 열고 《경찰국》설치에 대한 반대집행을 공식 선포하였다.

경찰의 집단항의에 당황조한 윤석열역적패당은 《쿠데타》, 《국가문란행위》, 《내란음모》로 몰아대면서 강경제압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사상초유의 경찰반란사태가 정국의 소용돌이로 떠올랐다. 《경찰국》신설을 둘러싼 정치적대립이 격화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의 《국정운영》에 또 하나의 난문제로 되고있다고 평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에 이은 《경찰공화국》의 출현,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공안정국》, 파쇼독재체제를 수립을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있는가를 독특히 보여준다.

그러나 파쇼정치로 얻은 것은 민심의 격렬한 항거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이다.

력대 보수집권자들의 가련한 운명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과거 독재자들의 반역의 전철을 밟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운명도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리관철

《가련한 신세》

